

# “회복국면? 아직 안도하긴 일러... IT·반도체株 주시름”

당분간 변동성 큰 장세 지속 전망  
기업 경영·실물 경제 회복이 관건  
과도하게 급락한 종목 고려해볼 만

코스피지수가 2거래일 연속 급등하면서 사실상 '회복세'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개인들은 연일 순매수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식 투자 대기자금도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아직 안도하긴 이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의 정책자금에 대거 유입되면서 증시는 진정세를 찾았지만 결국 실물 경제 회복이 관건이란 분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축소 여부도 중요한 변수다.

25일 메트로신문은 주요 증권사 5곳의 리서치센터장을 대상으로 증시전망과 투자전략에 대해 물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아직 저점을 통과했다고 단언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실적 등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급락한 종목을 위주로 선별적인 접근은 유효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 ◆“아직 속단하긴 일러”

정부의 정책자금에 대거 유입되면서 국내 증시는 이를 연속 강세를 보였다. 정부가 생각보다 강력한 금융 안정정책이 지수 상승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다만 ‘저점을 통과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고 있고,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지표도 발표되지 않아 충격이 어느 정도인

리서치  
센터장  
증시 전망

	 IBK투자증권 정용택	 케이프투자증권 김유겸	 메리츠증권 이경수	 SK증권 최석원	 하이투자증권 고태봉
코멘트	저점 통과 일러	실물 경제 지표 나와야	큰 흐름에서 진정 국면	단기자금 사정 회복돼야	진정국면이지 상승국면은 아니
투자전략	주도주 위주의 분할매수	시총 상위 종목 분할매수	가치주보다 성장주	낙폭 과대 업종 유망	최악의 경우 1100까지 떨어야
추천종목	IT	SK하이닉스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ERP 시스템, 온라인 관련주	반도체, IT

지 기능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지표들이 이번 주말부터 나온다”면서 “코로나19가 매크로 지표에 얼마나 실질적인 충격을 미쳤는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금융 정책자금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에서 목숨을 지탱했다”는 정도지 (기업이) 건강해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현재는 진정국면이지 상승국면은 절대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코스피 지수 하단을 1100선까지 열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기업의 경영환경이 좋아지는 게 관건이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면서 “금융 대책을 내놨지만 단기자금 사정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만드려 해도 결국 금융기관이 돈을 구해야 되는 이슈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 증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주식비중을 차차 늘려가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변동성이 큰 장세지만 큰 흐름에선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면서 “변동성을 활용해서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을 때마다 주식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 ◆IT, 반도체는 여전히 유망

이처럼 변동성 장세를 활용해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라는 조언이 나온다. 과

도하게 조정된 주도주가 대상이다.

최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자생능력이 부족한 실력 없는 기업들도 주가가 많이 내려갔지만, 외국인들이 어쩔 수 없이 팔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저평가된 종목들이 있다”면서 “낙폭이 과대한 업종에 투자하는 것이 유망하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쪽이 훨씬 회복률이 빠를 것”이라면서 “성장주 업종으로 매수에 집중하는 것

이 좋다. 특히 반도체 업종이 가장 유망하다”고 말했다.

김유겸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외국인들 수급을 살펴보면 시가 총액 상위 종목들을 아주 압축적으로 사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시총 상위 종목, 업종 대표종목들을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촉발시킨 ‘언택트(Untact) 비즈니스’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고 센터장은 “반도체와 IT가 그나마 유망한 업종”이라면서 “언택트 비즈니스, 디지털 관련주들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했다. 최 센터장 역시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이나 온라인 관련주를 추천했고, 김 센터장은 “채택근무와 같이 업계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엄지·송태화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저가매수 노리는 개미들 실탄 40조원 ‘사상 최대’

대기성 자금 투자자 예약금 폭증  
코로나 혼란에 증시로 자금 몰려  
신용용자 잔고는 급감, 7조 이하

‘저가 매수’를 노리는 개미(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예약금이 40조원을 넘어선 것. 반면 개인투자자들이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용자 잔고는 7조원 아래로 급감했다. 증권사가 자금을 보수적으로 집행하고, 반대매매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투자자예약금은 40조9912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투자자예약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에 맡겨두거나 주식을 판 뒤 찾지 않은 돈으로 증시 진입을 위한 대기 자금 성격을 지닌다.

투자자예약금은 지난해 말 27조원 수준에서 올해 1월 말 28조7000억원, 2월 말 31조2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이달들어 23일까지 8조6000억원이 폭증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폭락하자 저가 매수를 노리는 자금이 증시 주변으

로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스피는 연초부터 지난 23일까지 32.5% 하락했고, 코스닥지수도 33.8%나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 24일 정부가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급등해 반등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한편 개인 투자자들의 ‘빚 투자’ 규모를 보여주는 신용용자 잔고는 최근 급감해 7조원 선을 밑돌고 있다.

이달 24일 현재 신용용자 잔고는 6조4470억원으로 2016년 3월 7일(6조4340억원) 이후 4년 만에 최저다.

신용용자 잔고는 이달 12일 10조원 수준에서 계속 감소해 17일(8조5422억원) 9조원 선 아래로 내려간 데 이어 19일(7조8283억원) 8조원 선이 붕괴했고 23일 7조원 선마저 무너졌다.

최근 증권사가 투자자의 종목에 대한 투자 기준을 강화한 데다 주가 폭락으로 반대매매가 급증한 영향이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의외로 산 주식(미수거래)에 대해 결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최근 코로나19로 폭락장이 이어지자 급증했다.

/손엄지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 YES

# 필승코리아 펀드



**필승코리아 시즌2**

우량 채권의 안정성을 더한 필승코리아 30[채권 혼합]펀드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필승 코리아 펀드**는 미래 성장이 예상되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산업 및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우량 기업에 투자합니다

**필승 코리아 30펀드**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주식에 30% 이내로 투자하고 채권을 더해 안정성을 키웠습니다

**필승 코리아 펀드**는 운용보수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관련 대학 및 연구소에 지원합니다

\* 이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지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자는 펀드가입을 결정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 투자설명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수 및 수수료 외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20-00835호(2020.02.27~2021.02.26) \* 환매방법 : 15시 30분 이전(경과 후) 환매청구 : 2(3)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4)영업일에 지급 \* 보수 및 수수료 : Class A : 총보수 0.877% (판매 0.340%, 운용 0.500%, 기타 0.037%), 납입금액의 0.5% 이내 선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없음 \* 운용회사 : NH-Amundi자산운용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